

부산에 첫 적십자 불교봉사회

이달 중순부터 현장 활동·불자 동참 권유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관 등에 보낼 김장을 담고 있다.

1월 중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부산불교봉사회(가칭)가 결성된다. 적십자 내 불교봉사회로는 전국 최초다. 종교, 이념, 계급을 초월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 현장에 불자들이 조

직적,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구가 될 불교봉사회는 14명의 정회원과 40여명의 후원 회원으로 구성되며, 무료급식, 소년소녀가장돕기, 수재민 돕기, 헌혈 캠페인, 영아원 유아 목욕봉사, 새생명 후원금 보시

정회원 14, 후원회원 40여명으로 구성 무료급식·헌혈캠페인·보시장려 사업

장려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주자 회장과 윤수분 부회장, 정숙자 총무 등 회원들은 98년부터 불교조직이 없어 원불교 소속의 온천교당에서 활동해 왔다. 박 회장은 경전 공부 모임이나 사찰에서 만난 도반들을 하나 둘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적십자사 2002년 연말결산 행사에서 온천 교당이 최우수 봉사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데 앞장섰다. 자체적인 힘이 모아짐에 따라 박 회장 등은 8일 부봉회(전체 회장단 회의)에서 독자활동을 선언하고 1월 중순부터는 적십자사 불교봉사회로 활동하기로 했다. 단위 봉사회로 출발하는 적십자사 불교봉사회

는 지역별로 불자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을 꾸준히 이끌어낸다면 5개의 단위 봉사회가 합쳐 구성되는 지구 협의회 조직도 갖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이 갖춰지면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박 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불교봉사회가 생기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적십자의 봉사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발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불우한 이웃에 회향하는 일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생명사랑 방생운동 전개
이웃돕기·헌혈 등 형태로
영남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이 인간방생과 장기기증운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적극 실천하는 생명사랑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지금까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으로 대표되던 불교의 방생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장기기증, 헌혈 등의 형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층 승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영남불교대학은 2일 예전 연꽃마을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돕는 인간방생을, 10일에는 법장스님 초청 법문을 듣고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장기기증 방생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원구기자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12월 28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봉사하는 불국사 만들겠다”

자원봉사단(376명) 3월 창단 본격 활동

“항상 무주상 봉사를 실행하여 사회의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며, 세계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세계 일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불국사 자원봉사단(단장 종상스님)은 “보살정신을 구제화, 체계화하는 봉사단 발족으로 대승불교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불국정토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3월경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불국사, 기림사, 분황사, 불영사, 문수사 등 말사 대중스님과 산하 수행단체 회원 등 총 376명으로 구성됐다. 천미희기자

단과 수행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년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 종상스님은 “보살정신을 구제화, 체계화하는 봉사단 발족으로 대승불교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불국정토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3월경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불국사, 기림사, 분황사, 불영사, 문수사 등 말사 대중스님과 산하 수행단체 회원 등 총 376명으로 구성됐다. 천미희기자

동화사 대불조성 후속사업 지원 최선

불교문화재 유지관리에 130억 투입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불교계지원 밝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불교계 지원사업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12월 30일 가진 대구불교방송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민족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재 관리와 사찰 증개축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특히 “파계사 설법전 개축을 위한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화사 대불조성 이후 여러 후속사업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경북도지사도 2일 “불교문화재는 경북지역 전체 문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금년 130억원 을 들여 문화재 유지관리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의 도난방지과 화재예방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원구기자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밤 청소년 7명에 장학금도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지난해 12월 26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해동안 용호복지관에서 이·미용 봉사, 무료 법률

상담, 밑반찬 서비스 등 복지와 재가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참석했다. 관장 혜총스님은 금강봉사회, 예문여고 봉사회, 박정식 후원자 등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근로장학생과 진학을 앞둔 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천미희 기자

경주문화재 발굴조사단 설립 불투명

인건비·전문인력 확보 어려워 제자리 걸음

경주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설립문제가 인건비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설립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최근 신속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 발굴조사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발굴조사단을 설립키로 3년 전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

으나, 경주시의 구조조정 후 인력증원이 안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의 경우 지역의 각 대학 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지역 문화재연구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물량증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현재 진행 중

인 발굴조사 이외에도 매년 긴급 발굴이 쏟아져 문화재 발굴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더욱이 1~5년 이내 고수혈도 경주노선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부대시설 공사가 쏠릴 것으로 보여 경주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의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구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신년축하 산사음악회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2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회향법을 봉행했다. <사진> 현산스님(전계대화상)의 회향법문으로 이어진 이날 회향법회에는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2002년 12월 4일부터 30일간 펼쳐진 화엄산림을 회향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화엄산림 회

향을 기념하고 신년을 축하하는 ‘작은 산사음악회’를 열어 백성스님의 사찰학춤, 심진스님, 소프라노 배성신, 가수 서주경, 최석준 등을 초청, 노래와 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통도사 ‘영축산 환경위원



회’는 화엄산림 기간동안 초산유원지 개발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통도사 인근 산을 보호하고 자연 파괴를 막는데 불자들의 뜻을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천미희기자

범어사 e메일 서비스

부처님 말씀·금정산 소식

범어사(주지 성오)는 12월 중순 메일링 서비스를 실행가능한 것을 시작으로 1월부터 범어사와 금정산 소식, 부처님 말씀, 법문, 매월 업데이트되는 범어사회보 내용 등을 e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찰 대본산으로 부산의 유일한 교구본사인 범어사 소식을 받아보

고 싶은 사람은 범어사 홈페이지(www.beomeosa.org)에 접속,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행사 소식, 금정산 소식 등 최근의 범어사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관리자인 이금자씨는 “불자들에게 찾아가는 범어사가 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불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대구불교회관 3월 정식 개관

1월 중 이전등기 완료·2월말까지 수리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는 2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구 신천동에 건립하던 대구불교회관 부지 및 골조를 매각하고 대명동의 태왕본사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12월 6일 대구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원주지연합회는 1월중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내부수리를 거친 뒤 3월 정식 개원식을 가지며 건

물 1,2,3층은 세를 놓고 2층과 3층은 불교단체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원주지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가진 임시총회에서 대구불교회관의 운영주체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의 정관을 조계종 종회에 입법 예고된 법인관리법에 준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원구기자